

“백신 교차접종, 개인이 결정해선 안돼”

WHO 수석과학자 주의 당부

“공공보건기관들이 결정할 문제”

“면역반응·안정성 연구 진행중”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과학자가 코로나19 백신의 교차 접종은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 전문가의 영역이라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WHO 최고과학자인 슐야 스와미나탄 박사는 전날 브리핑에서 제약사가 서로 다른 백신을 교차 접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를 “조금 위험한 흐름”이라고 빗대면서 “만약 시민들이 언제 누가

2차·3차·4차 접종을 할지 결정하기 시작하면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차 접종은 현재 연구자료가 부족한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스와미나탄 박사는 이날 밤 트위터를 통해 발언 수위를 낮췄다.

그는 교차 접종이 “개인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공공보건기관들이 자료를 근거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하며 “면역반응과 안정성 평가를 위한 여러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불안한 탓에 교차 접종을 허용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1회차 AZ 백신 접종자에 대해 2회차에 화이자 백신 접종을 허용한 나라는 스웨덴(65세 미만), 독일(60세 미만), 프랑스(55세 미만), 핀란드

(65세 미만), 이탈리아(60세 미만) 등이 있다.

캐나다는 1회차에 AZ 백신을 맞았으면 2회차에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우선해 맞으라고 권고했고, 영국은 1,2회차 모두 같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럴 수 없을 땐 교차 접종을 허용한다.

스와미나탄 박사가 경고한 내용은 불과 한 달 전 WHO 자문단이 내놓은 권고와도 다소간 엇갈린다. 지난달 WHO 면역자문단인 전문가전략자문그룹(SAGE)은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물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2차는 화이자로 접종할 수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는 현재 AZ·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 백신 교차 접종에 대한 임상실험이 진행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중국 장쑤성 호텔붕괴 참사 원인은 '불법 개조' 지난 12일 중국 동부 장쑤성 쑤저우 호텔 붕괴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3일 현재 쑤저우 쓰지카이위안 호텔 붕괴 현장에서는 사망자 8명과 부상자 6명 등 모두 14명이 발견됐으며, 아직 최소 9명은 실종된 상태다. 이번 참사는 호텔 소유주가 불법으로 개조 공사를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日 극우세력 또 오사카 소녀상 전시 훼방

“시설 파괴·공격” 협박문 배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선보이는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일본 우익 세력의 비열한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

16~18일 소녀상 등을 보여주는 ‘표현의 부자유전 간사’가 예정된 일본 오사카시의 전시장 ‘엘 오사카’에 “개회하면 실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협박문이 배달됐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예상하지 못한 사태를 경고한다. 전시 시설의 파괴, 인적 공격을 포함한다”고 위협하며 전시회 취소를 요구하는 오사카부 관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이 전날 엘 오사카에 배달됐다. 위협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지 경찰은

협박 및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전시장 관리자 측은 “위협을 느끼지만 즉시 임시 휴관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반응했다. 협박문은 소녀상 등의 전시 계획에 불만을 품은 극우 세력이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6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에서 현지 시민 단체가 소녀상을 선보이는 비슷한 전시회를 개막했으나 중간에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든 우편물이 협박문과 함께 배달되면서 전시가 중단됐다.

도쿄에서 추진한 소녀상 전시는 우익 세력의 방해가 이어지자 시설 관리자 측이 주변에 민폐를 끼친다며 장소 제공 의사를 반복해 행사가 연기됐다. /연합뉴스



이상고온에 강가로 모여든 모스크바 피서객들 13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강 강가에서 피서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러시아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속에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평년 기온을 7도 이상 웃도는 섭씨 30도 이상의 이상 고온 현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살 여아도 주검으로...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사망자 95명

마지막 실종자 4명 찾는 데 주력

‘참사 재발 막자’ 원인조사도 박차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발생한 서프사이드 아파트 붕괴사고의 사망자가 95명으로 늘었다. 실종자가 4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당국은 막판 시신수습, 신원확인 등 함께 사고원인 규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AP통신, NBC뉴스에 따르면 다니엘라 레빈 카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장은 13일(현지시간)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확인된 사망자 중에는 한 살배기 여아

아이사니 기아 파텔도 있었다.

파텔의 시신은 지난 6월 발견됐으나 신원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의 부모인 바살 파텔(42), 바브나 파텔(38)도 숨진 채 발견됐다.

지금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은 1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시신이 수습된 신원 미확인자가 10명이라는 점을 고려해 4명의 시신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카바 카운티장은 “경찰과 의학 검사관들이 밤을 새워가며 신원을 확인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지점에서 사고현장 수색은 시신 수습이 아닌 신체 잔존물을 찾는 작업이라고 설명했

다. 당국은 지난달 24일 사고 뒤 하루 두 차례씩 이어온 정례 브리핑을 끝내고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따로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 아파트 붕괴 원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건물 구조에 심한 손상이 있다는 경고가 일찌감치 2018년에 나온 적이 있다. 당시 부실 지적을 받은 건물 하단 부 주차장에서 붕괴가 촉발됐다는 분석에 따라 인제, 법규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 상무부 산하 미국 표준기술연구소(NIST)와 지역 기관들은 법규를 개선해 비슷한 참사의 재발을 막을 목적으로 사고원인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카고, ‘조폭’ 숫자가 경찰의 9배

경찰 처우 악화로 퇴직 행렬

올해 살인사건만 벌써 382건

한때 ‘범죄의 도시’라고까지 불린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경찰들의 퇴직행렬이 이어져 우려를 낳는다. 시카고는 현재 범죄 조직원 숫자가 경찰의 9배에 달해 최근의 경찰력 감소가 더 많은 범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시카고선타임스 등에 따르면 작년 기준 시카고에는 55개 범죄 조직에 11만7000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시카고 경찰은 1만3000여명으로 범죄

조직원 수의 9분의 1에 불과했다. 범죄 조직원과 경찰 숫자의 이런 불균형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카고에서 올해 상반기 퇴직한 경찰관은 363명이다. 이는 지난해 한 해 퇴직자(560명)의 65% 수준이며 재직자(475명)의 3분의 2가 넘는다. 심지어 2018년 전체 퇴직자(339명)보다는 많다. 퇴직행렬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달 56명이 경찰복을 벗을 예정이다.

경찰관들이 일을 그만두는 이유로는 열악한 노동환경이 꼽힌다. 시카고는 올해 들어 살인사건만 벌써 382건이 발생했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5명(1%) 줄어든 것이지만 이전에 비하면 40% 안팎의 폭발적인 증가세다. /연합뉴스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